



발행처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 박종환
등록일 | 2010년 4월 21일

KFF 뉴스

제195호 <월간·등록번호 서울 아 01215>

www.koreaff.or.kr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Tel. 070-7122-8057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는 자유총연맹,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

창립 65주년 기념, 청와대 예방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임원과 시·도지부 회장, 시·군·구지회 회장 등 250여 명이 6월 21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창립 65주년을 맞아 “하나 된 국민, 하나 된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국민운동단체로, 탈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에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뜻하는 ‘국리민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

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했다”며 “갈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찾아 해결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이 하고 있는 한반도 숲가꾸기 사업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환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한 바 있다”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통일 현장 답사 및 해외지부 개설 유럽 4개국 순방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한승경 부총재 등 유럽 순방단은 5월 21~31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를 방문해 해외 지부를 신규 개설하는 등 자총의 글로벌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귀국했다.

자총 유럽순방단은 5월 21~24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오현균 영국지부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뱅크역 공원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순방단은 각국의 대사관을 방문해 자총 해외지부 활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종환 총재는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고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 독일의 통일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베를린 장벽 등 ‘통일 독일의 현장’을 견학했다.

자총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해외지부를 포함한 교민사회에 국리민복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등 국제적 활동 지평을 넓혔다.



◇박종환 총재가 5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광장 무명용사묘에 헌화하고 있다.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 한국자유총연맹이 함께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5주년

모든 활동을 행함에 있어 최고의 판단 기준은 **국리민복**(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입니다.

| 사회통합의 지름길은 봉사활동입니다.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350만 회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변화와

| '가짜뉴스'를 근절하겠습니다.



근절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디어교육을 받고 세상을 바로 보는 역량을 갖추어 허위조작정보를

| 한반도의 숲 푸르게 가꾸겠습니다.



거두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면서 동시에 평화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산림협력의 실천적 성과를